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7일 수요일 음 6월 29일 (6월)

건강&생활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9-31℃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for Jeju Island, including precipitation percentages and wind direction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AQI) and UV index information.

Table with PM10 and PM2.5 concentration levels.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two days.

월드뉴스

스리랑카 한 달만에 학교 다시 열어

“학생들 교통수단 문제 직면”

기름 부족 등으로 인해 휴교에 들어갔던 스리랑카의 학교들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뉴스 퍼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와 외신이 2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25일 등교하는 스리랑카 학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각 학교는 이날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

받아 충분한 수의 통학버스를 투입하려 한다며 지원에 나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통학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업은 주 3일만 진행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외화 부족으로 인해 기름 등 생필품 수입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0일 수도 콜롬보 등 주요 도시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공립학교 교사인 산다레누 아마라시리는 EFE통신에 “학생 대부분이 교통수단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며 “일부 학급에서는 학생 6명만 등교한 상태”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이에 민영버스사업자협회는 국가수송위원회로부터 기름을 공급

요청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website.

건강염려증 벗어나기



강지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일본 다음으로 길고, 질병 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믿거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질병이다.

건강염려증 벗어나기

경향이 있어, 기침이나 소화불량 같은 사소한 증상을 앓고 같은 심각한 병으로 여겨 자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지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도 믿지 않는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신체적 질환이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다.

보통 처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또한 과도한 의학 정보와 무분별한 건강 상식이 난무하고 허위, 과대, 겁주기 건강 광고들이 의학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신체적 질환이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하다.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요구받고 있다.

열린마당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아시나요



한경돈

서귀포시 표선면

2022년부터 제주도에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됐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소유자가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차고지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주택일 경우 제주도 특유의 돌담 등으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있어 차고지를 증명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등의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담장 등을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소당 개인은 6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은 9년이다.

이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가 필수가 됐다.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을 통해 개인차고지를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동참하면서 차고지증명 걱정없이 삶의 질도 향상될 것 바란다.

한림종묘사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corn and soybean varietie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advertisement for citrus seedlings, listing varieties like Winter Prince and Golden Honey.

감귤 포트묘목 분양 advertisement for citrus seedlings, listing varieties like Hanrabong and Golden Honey.

감귤묘목 분양 advertisement for citrus seedlings, listing varieties like Winter Prince and Golden Honey.